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11호 【루계 제2741호】

주체112(2023)년 3월 11일 토요일 음력 2월 20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중요작전임무를 담당하고있는 군부대를 현지지도하시고 화력습격훈련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3월 9일 조선인민군 서부전선의 중요작전임무를 담당하고있는 화성포병부대를 현지지도하신 후 화력습격훈련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현지에서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인들의 전투정치훈련실태와 군부대의 중요작전임무행동질서 및 무기체계운용능력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모든 군인들이 높은 계급의식과 투철한 대적의지, 견결한 투쟁관점을 지니고 항상 동원된 태세에서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고있을뿐 아니라 맡겨진 중요한 군사적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작전능력을 부단히 완비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부대의 중요요소들과 직속구분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전쟁준비실태와 군인들의 군무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날 서부전선방면의 적작전비행장을 담당하고있는 군부대관하 제8화력습격중대의 실전대응태세를 판정검열하시였다.

화력습격훈련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요간부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지휘관들이 참관하였다.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준동도 일거에 제압할수 있는 확실하고 면밀한 림전태세에서 타격임무수행능력을 련마해온 화력습격중대는 적작전비행장의 주요요소를 가상하여 설정된 조선서해상의 목표수역에 위력적인 일제사격을 가함으로써 자기들의 실전대응능력을 자신감있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훈련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화성포병들이 실전에 대응할수 있게 위력적으로 엄격히 준비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의 검열훈련결과는 군대는 언제든지 싸울수 있게 준비되여야 하고 말보다 실제적인 행동에 책임적이여야 한다는 중대한 사명감과 명백하고 실천적이며 드팀없는 우리의 군사행동의지를 똑똑히 보여준것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최근 들어 더욱더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적들의 각종 전쟁준비책동에 항상 각성하며 언제든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제압할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키워나감으로써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충돌위험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 부대가 맡고있는 작전임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피력하시면서 관하 화력습격구분대들이 각이한 정황을 조성하고 여러가지 실전가상훈련들을 다각적으로 부단히 강화해나감으로써 첫째로 전쟁을 억제하고 둘째로 전쟁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전략적2대임무수행에서 최대의 완벽을 기할수 있게 엄격히 준비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부대안의 전체 전투원들은 강력한 실전태세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자주권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적들의 책동이 우리가 선정한 한계를 넘는 순간 그 언제든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결행할 의지로 들끓고있다.

본사기자

인민의 리상이 꽃펴나는 위대한 나라

어느덧 1년이 되여온다.

지난해 3월 준공을 앞둔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찾으시여 머지않아 인민들이 자기 손으로 준공테프를 끊고 보금자리에 드는 모습들을 보게 되였다고, 자신의 소망이 또 한가지 풀리게 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후 뜻깊은 태양절을 며칠앞두고 인민의 리상거리, 사회주의번화가로 웅장하게 솟아오른 송화거리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여 새 거리, 새 집의 주인이 된 우리들을 따뜻이 축복해주시던 자애로운 어버이의 해빛같은 그 미소를 정녕 잊을수 없다고 하면서 송화거리의 주인들은 격정에 겨워 이렇게 토로한다.

《평범한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번화가의 주인된 꿈같은 현실이야말로 우리 원수님의 품에서만 태여날수 있는 사회주의전설입니다.》

《우리 인민을 이 땅의 모든 문명과 행복을 마땅히 누려야 할 당당한 주인들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되새길수록 감격의 눈물을 금할수 없습니다.》

어찌 그들만의 심정이라 하랴.

누구나 보면 감탄하고 부러워할 아름다운 구슬다락, 경루동에 새 보금자리를 편복받은 주인공들도, 건설혁명의 불길속에 더욱 아름다워지고 웅장해질 수도의 래일, 문명한 생활을 휘황히 그려보는 온 나라 인민들 누구나 크나큰 흥분과 격정속에 숭엄히 떠올린것은 무엇이였던가.

돌이켜보면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나날과 더불어 참으로 많은 인민의 리상거리, 선경거리들이 수도의 곳곳에 일떠섰다.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하지만 56정보의 부지면적에 160여동의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봉사망들을 불과 한해사이에 완공해야 하는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은 건축형식과 내용, 공사규모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창조대전이였다. 더구나 해마다 평양시에 1만세대씩 살림집을 건설한다는것은 누구나 쉽게 내릴수 있는 용단이 아니였다.

지금도 가슴뜨겁게 어려온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대규모살림집건설을 최중대과업으로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는 5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첫시작인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이며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들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불타는 념원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인민의 리상거리건설을 정력적으로 이끄시며 불면불휴의 날과 달을 이어오시였다.

인민군대가 새로운 평양속도, 건설신화창조의 기치를 들고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줄데 대한 문제, 설계부문에서 송신, 송화지구에 건설하는 모든 건축물들의 설계를 우리의 주체건축을 또 한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할데 대한 문제, 살림집립면을 현대감이 나게 개변하고 기단층을 굵직굵직하게 련결시키면서 건물들의 높낮이차를 줄데 대한 문제, 도로를 가로질러가는 건물형식의 고가다리를 설치하고 관통건물도 배치할데 대한 문제…

그 나날 몸소 지도해주신 1만세대 살림집건설형성안만 해도 1 000여건에 달한다.

이뿐이 아니다.

건설력량과 시공분담, 강재와 세멘트, 골재를 비롯한 각종 건설자재들과 공사용연유, 건설장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대책해주시고 건설에 필요한 물동을 즉시에 수송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 나날 경애하는 그이의 심중에 꽉 차있은것은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1만세대 살림집완공의 기쁨을 안겨주고싶으신 강렬한 열망이였고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나라로 만드실 드팀없는 의지가 아니였던가.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교육, 보건, 편의봉사시설들, 고가다리, 장식구조물 등이 특색있게 조화되여 조형화, 예술화와 호상성, 련결성, 실용성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도록 하시고 매 살림집들에 놓아줄 비품과 출입문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관심하시며 인민들에게 최상의것을 안겨주시기 위해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신 인민의 어버이.

경애하는 그이의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은 경루동에도 력력히 새겨져있다.

모든 생활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궁궐같은 살림집을 인민들에게 안겨주고싶으시여 몸소 보통문주변 강안지구에 호안다락식주택구를 새로 일떠세울 구상을 밝히시고 현지를 돌아보시며 세심히 지도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숭고한 세계는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과 주체건축의 비약적발전상이 응축된 평양의 새 경관을 펼치였다.

진정 인민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오실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경애하는 그이께서 펼쳐가시는 창조의 세계,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송화거리와 경루동이 인민의 리상거리, 사회주의번화가로 훌륭히 일떠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의하여 올해에 들어와서도 수도시민들을 위한 거창한 창조대전은 련이어 펼쳐지고있다.

이미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있는 속에 얼마전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의 발파소리가 울려퍼지였으며 계속하여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착공식도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 뜻깊은 착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여 격동적인 연설로 청년전위들을 고무격려해주시고 착공의 첫삽을 뜨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막아서는 곤난이 아무리 혹독하여도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살림집건설만은 반드시 실행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고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자애로운 어버이를 높이 모시여 공화국에서 인민의 꿈과 리상은 나날이 현실로 꽃펴나고 인민이 부르는 행복의 노래소리, 로동당만세소리는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있다.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수도건설자들, 아니 온 나라가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을 실천으로 받들자.

우리의 영웅적기상과 불굴의 투쟁이 어떤 휘황한 변혁적실체를 안아오는지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자.

바로 이것이 령도자의 구상을 반드시 빛나는 현실로 펼쳐놓고야마는 공화국인민들이 환희로운 이 봄날에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공화국의 수도 평양은 앞으로 건설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예술조형성과 현대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답고 웅장한 거리와 구역들이 줄비하게 펼쳐진 인민의 리상도시로 더욱 훌륭히 변모되고 그와 더불어 온 나라가 인민의 행복 넘쳐나는 천하제일락원으로 천지개벽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영 범

송화거리

경루동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착공식

탁월한 사상리론의 거장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제시하시여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이 전면적발전에로 이행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공화국에서는 나라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촌의 면모를 개변시키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제기되고있다.

이러한 시대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에서 농촌문제해결의 진로를 뚜렷이 명시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제시하시였다.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에는 전국의 농촌을 부유하고 문명하며 살기 좋은 리상촌으로 꾸리는데서 나서는 고귀한 지침들이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 농촌을 주체사상화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것을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로 정해주시였다. 다시말하여 전체 농업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근본적인 개조변혁을 이룩함으로써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것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목표로 제시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에서 농업근로자들을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 만드는것을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주되는 과업으로, 그 승리를 위한 관건적요인으로 내세우시였다.

또한 농업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자혁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재해성이상기후에 대처할수 있는 과학적인 농사체계와 방법을 확립하며 나라의 알곡생산구조를 바꾸고 벼와 밀농사를 강하게 추진하는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농업생산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정책적문제들을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변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사회주의농촌문명을 이룩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은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에 관한 사상리론을 전면적으로 계승하고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새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는 길을 휘황히 밝힌 위대한 농촌건설강령이다.

또한 공화국의 모든 농촌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사회주의락원으로 훌륭히 전변시켜 인민들의 세기적숙망과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다그쳐나갈수 있는 위력한 실천의 무기이다.

농촌문제를 부강조국건설의 길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전략적문제로 중시하고 그 옳바른 해결책을 밝힌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농촌혁명강령실현의 첫해인 2022년도 사업정형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고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줄기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에는 이상기후현상에 대비한 전반적인 관개체계의 완비를 다그칠데 대한 문제, 농기계부문을 혁신적으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강력히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 간석지개간과 경지면적을 늘이는 문제, 농업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토대를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는 사업을 추진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농촌혁명의 기치높이 농업생산의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가까운 몇해안에 공화국의 농촌을 문명하고 부유한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투쟁방략들이 집대성되여있다.

심원한 독창성과 과학성으로 일관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결론은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현을 위한 거창한 공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도약의 디딤돌을 마련한 변혁의 무기로, 자기의 리상과 자기 힘에 대한 자신심으로 충만된 인민들의 력사적진군을 새로운 승리에로 이끄는 전투적기치, 불멸의 대강으로 되고있다.

지금 공화국의 농업근로자들을 비롯한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높이 받들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농촌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나가고있다.

김 금 화

온 나라가 농촌진흥의 새 력사창조에 떨쳐나섰다

충천한 열의, 드높은 기세

공화국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국가발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힘찬 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이번 당전원회의를 통하여 새시대 농촌혁명의 기치높이 농업생산의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농촌을 문명하고 부유한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투쟁방략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농업근로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근로자들은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농업발전의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해갈 신심과 열의에 넘쳐있다.

《이번 전원회의는 나라의 알곡생산을 책임진 우리 농업지도기관 일군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하였다.》

《올해 농사의 결실도, 5개년계획에 제시된 알곡생산목표의 수행여부도 우리 농업과학자들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 농사시작부터 마감까지 과학기술의 힘을 강력히 안받침하여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지금처럼 우리 평범한 농장원들의 위치가 이렇듯 부각되여본적이 언제 있었는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오늘의 하루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일해나가겠다.》

…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그 어디를 가보아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필승의 신심드높이 농업생산에서 근본적인 변혁, 실제적인 변화를 이룩해갈 맹세로 가슴끓이고있다.

농업부문의 일군들이 지난 시기의 사상관점과 일본새에서 벗어나 능숙한 조직자, 완강한 실천가가 되여 농사지도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하여 적극 분발해나섰다.

농업연구원을 비롯한 과학연구단위의 과학자들도 농업전선의 전초병, 선두마차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재해성이상기후에 견디여낼수 있는 우량품종의 종자들을 짧은 기간에 육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이들은 비료와 농약의 효과성을 최대로 높이는 문제, 국내기술과 원료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 과학적인 재배기술확립 등 많은 연구과제들의 수행을 다그치고있다.

사회주의전야가 알곡증산열기로 세차게 끓고있다.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애국열, 투쟁열을 배가하며 올해 알곡고지점령을 향해 기세좋게 나가고있다.

농업부문에서는 이상기후현상에 대비한 전반적인 관개체계의 완비를 다그치는것을 현시기 농업의 안정적발전을 담보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내세우고 계획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있다.

배천군에서는 물보장이자 알곡생산이라는것을 깊이 새기고 양수설비들의 수리정비에 각별한 힘을 넣어 계획한 사업을 앞당겨 끝냈다.

어랑군과 선천군에서도 재해성이상기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주도세밀하게 전개하여 양수설비수리정비사업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고있다.

지력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포전을 옥토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재령군 삼지강농장에서는 발효퇴비를 비롯한 질좋은 자급비료생산과 모판자재확보를 남먼저 결속하였으며 김제원농장에서는 모든 포전에서 다수확을 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지력제고에서 찾고 집단적혁신으로 계획한 면적의 흙깔이를 마무리하였다.

안주시에서도 질좋은 자급비료생산과 실어내기, 흙깔이를 박력있게 내밀고있다.

올해 알곡생산에서 뚜렷한 실적을 낼 일념을 안고 분발해나선 시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안의 포전들에 많은 거름이 실려나가고있다.

지난해 농사정형을 놓고 교훈을 찾은 봉산군에서는 저수확지를 포함하여 지력이 낮은 포전들에 대한 토지개량을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드팀없이 내밀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과업은 방대하고 장애와 난관이 앞을 막아나서고있지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의 힘찬 투쟁에 의해 올해 알곡고지점령과 농업발전의 전망목표를 위한 담보가 착실하게 마련되여가고있다.

본사기자 전 명 진

방송

보 금 자 리

◇ 흔히 집을 가리켜 보금자리라고 한다. 《설음중의 설음은 집없는 설음》이라는 말도 있듯이 피와 살을 나눈 한가족의 심신이 안정되고 행복이 꽃펴나는 곳이 바로 집—보금자리이다. 문명발전과 더불어 각이한 형태와 모양의 살림집으로 발전되여온 집은 오늘 다양화, 다각화, 다용화, 록색화로 발전하고있다. ◇ 세상에는 집없이 서럽게 사는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남조선에서도 집값이 너무도 비싸 평생 집없이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특히 근로인생들에게 있어서 《내 집마련》은 실현될수 없는 꿈으로 되고있다. 집없는 설음이 강산에 차넘치는 남조선에서는 지난 1월에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일어나 서민들을 더욱 슬프게 했다. 1980년대부터 개발지역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비닐과 합판 등으로 지은 서울의 판자촌이 바로 구룡마을이다. 그 화재로 판자집 약 60채, 총 2 700㎡가 소실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지에 나앉게 되였다. 판자집, 쪽방마저 잃은 그들은 결방살이와 로숙으로 고달픈 생을 이어가고있다. 이들에게 살림을 펼 보금자리, 집이 언제 생기겠는가 하는것은 기약할수 없다. 아니, 생각조차 할수 없다. 돈과 환락만을 쫓는 남조선에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는 그 비참한 인생들에게 누가 집을 주겠는가. 남조선을 왜 《헬(지옥)조선》이라고 하는지 구룡마을사람들의 비참한 운명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 공화국에서는 해마다 살림집건설로 열기를 띠고있다. 평양시에서만도 해마다 1만세대씩 살림집을 짓기 위한 건설이 진행되고있다. 올해는 수도에서만도 지난 한해보다 더 많은 1만 수천세대의 살림집이 건설되게 된다. 얼마전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위한 착공의 발파소리가 울린데 이어 수도 평양의 북쪽관문구역에 4 000여세대의 살림집이 들어찰 특색있는 새 거리건설착공식이 진행되여 평양, 아니 온 나라가 명절처럼 흥성이고있다. 지방들에서도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단층, 소층의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들이 련속 일떠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새집들이 풍경이 매일같이 도처에서 펼쳐지고있다. 그 훌륭한 살림집들이 평범한 근로인민에게 무상으로 차례지고있으니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는 강산에 더욱 세차게 메아리치고있다. 인민존중,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이야말로 인민들의 따뜻한 삶의 보금자리이다.

참다운 녀성중시, 녀성존중의 대화원을 펼쳐주시여

국제부녀절인 3월 8일에 공화국의 각지에서는 녀성찬가의 노래소리가 봄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

녀성은 꽃이라네 나라의 꽃이라네
걸어온 위훈의 길에 수놓을 꽃이라네
정다운 안해여 누나여 그대들 없다면
나라의 한자리가 비여있으리
녀성은 꽃이라네 나라의 꽃이라네

도시와 농촌, 거리와 마을 그 어디나 명절일색으로 단장되고 사람들의 축복속에 녀성들을 위한 다채로운 축하모임, 축하공연들이 진행되였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진행된 녀성들의 열기띤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들이 명절분위기를 한껏 돋구었고 급양봉사망들은 녀성들을 위한 봉사로 흥성이였다.

남편과 자식들, 이웃들과 동지들의 사랑과 존경이 담긴 특색있는 축하장과 기념품, 아름다운 꽃송이를 받아안은 녀성들의 행복과 기쁨의 웃음소리 또한 강산에 넘치였다.

어찌 어디서나 볼수 있는 례사로운 일이라 하랴.

녀성으로 태여난것때문에 온갖 편견과 속박, 멸시와 희롱에 시달려야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존중과 협조, 화목과 단합이 국풍으로, 륜리도덕으로 되고있고 녀성들이 가정의 꽃, 나라의 꽃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회, 녀성들이 한가정의 주부로서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여 보람찬 삶을 누리는 공화국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경이적인 화폭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돌이켜보면 수수천년 내려오는 계급적예속과 봉건적억압, 가부장적구속에 얽매여 가혹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 나라의 녀성들이였다.

지어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민족수난의 시기 침략자의 성노예로 짓밟히고 목숨까지 빼앗겨야 했던 조선녀성들이였다.

하다면 언제부터 온갖 불평등과 사회악의 희생물이 되여 갖은 불행과 고통속에 신음하던 이 나라 녀성들의 수난사가 행복의 력사로 바뀌게 되였는가.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나라를 찾아주신 그때부터였다.

나라가 해방된 후 녀성들을 봉건적인 압박과 굴욕에서 벗어나도록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시여 녀성들을 가정과 사회, 나라의 주인으로 떳떳하게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

남녀가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 남녀가 어깨겯고 혁명을 밀고나가는 사회를 건설하시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치신 로고는 정녕 끝이 없었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녀성간부들을 만나시면 더욱 대견해하시며 걸음걸음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속에 얼마나 많은 녀성들이 조국청사에 뚜렷한 생의 흔적을 남기였던가.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해방한것만큼 이제는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그것을 3대기술혁명의 중요과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 같으신 인민의 어버이는 력사의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주시고 튼튼히 다져주신 녀성해방의 길, 그 길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조선녀성들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세워주시였다.

지금도 공화국인민들은 피눈물의 해를 보내고 맞이한 주체84(1995)년 3월 8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력사적인 담화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 나가는 힘있는 력량이다》**의 구절구절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치는 녀성들을 높이 내세우시며 녀성들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더욱 힘껏 떠밀어나가도록 고무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담화에서 온 나라 인민이 심장으로 새긴것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공화국녀성들의 삶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웅심깊은 사랑이였다.

그 은혜로운 사랑에 실려 《사랑하시라》의 노래가 시대의 찬가로 이 땅에 높이 울려퍼지고 녀성들의 삶의 향기가 온 강산에 더욱 넘쳐흐르지 않았던가.

《녀성해안포병과 약크림》, 《3.8절의 〈봄향기〉》, 《은정어린 〈코스모스〉보석머리빈침》 등 선군시대에 태여난 수많은 혁명일화들은 녀성중시, 녀성존중의 대화원을 가꾸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뜨거운 은정을 심장으로 절감하게 하고있다.

조선녀성들의 존엄높고 행복한 삶은 오늘 또 한분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격동의 시대와 더불어 더욱 긍지높이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마다 3.8국제부녀절을 뜻깊게 경축하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고 어머니날도 새로 제정해주시였다.

일 잘하는 녀성일군, 녀성로동자들을 만나실 때면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분, 부모잃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고 영예군인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여준 녀성들, 병사들의 친부모, 친누이가 되여 원군길을 이어가는 녀성들의 소행자료를 보고받으실 때면 못내 기뻐하시며 온 나라가 다 알도록 영광의 단상에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처럼 어려웠던 지난해에도 세상에 없는 육아법을 채택하도록 하시고 준엄했던 최대비상방역기간에는 애기어머니들을 위해 젖가루와 암가루를 공급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해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의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온 나라 인민의 가슴가슴을 격정으로 소용돌이치게 했다.

진정 주체의 사회주의화원에서 나라의 꽃, 생활의 꽃, 가정의 꽃으로 아름답게 피여나는 녀성들에게 영광과 행복이 있기를 따뜻이 축복해주시며 정과 열을 다해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인생의 가장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공화국의 녀성들은 얼마나 복받은 녀성들인가.

하기에 남조선의 인터네트들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남쪽땅에서는 녀성들이 잡초처럼 짓밟히지만 공화국에서는 생활의 꽃, 행복의 꽃, 나라의 꽃으로 노래되고있다.》

《공화국이 그렇듯 리상적인 녀성복지사회로 된것은 녀성들을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워주시고저 온갖 은정을 다 베푸시는 따사로운 해님을 모신 덕분이다.》

그렇다.

태양의 빛과 열이 있어 온갖 꽃이 만발하듯이 녀성중시, 녀성존중의 대화원을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녀성들의 삶이 그리도 빛나고 국가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힘있는 력량으로 되고있는것이다.

김 숙 영

함께 울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대가정

위해주고 아껴주는 친혈육의 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화목하게 사는 이 땅, 따뜻한 사랑과 정이 물과 공기처럼 흐르는 공화국에서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미담들이 수없이 꽃펴나고있다.

원아들의 눈동자에 새겨진 어머니모습

지난 2월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을 가지고 평양육아원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다. 의학연구원 로동자 박성임과 그의 가족이였다.

박성임과 그의 가족이 평양육아원의 원아들을 찾기 시작한것은 5년전부터였다. 그해 4월 박성임의 가정에 경사가 났다. 맏딸이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였던것이다.

평범한 로동자의 가정에 베풀어지는 나라의 은덕을 눈물겹게 되새겨볼수록 그는 고마운 그 품을 위해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량심의 물음에 머리가 숙어졌다.

그날 밤 어떻게 해야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할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남편과 함께 의논한 그는 가정에서 마련한 물자들을 가지고 평양육아원을 찾게 되였다.

이렇게 시작된 원아들을 찾아가던 나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언제인가 그의 자식들이 생일을 맞는 어머니를 위해 성의껏 음식상을 마련한적이 있었다.

그런데 자식들의 지성이 담긴 음식들을 이윽토록 바라보던 그가 문득 수첩을 펼쳐보더니 오늘 육아원에 생일을 맞는 원아들이 있다고,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싶다고 하는것이였다. 그의 수첩에는 원아들의 생일은 물론 건강상태며 생활습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자료들이 꼼꼼히 적혀있었던것이다.

이런 그였기에 지난해 최대비상방역기간에만도 평양육아원과 수시로 련계를 가지고 밤잠을 미루면서까지 진정을 기울이였고 보육관리의 정보화에 필요한 설비들도 마련하여 보내줄수 있었다. 나라에서 걱정하는 문제를 하나라도 떠맡아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려는 고결한 지향을 안고 달마다 육아원을 찾는 그의 모습은 원아들의 눈동자에 친어머니의 모습으로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이른아침에 찾아온 사람들

지난해 9월 어느날 평천구역건물관리소에서 일하고있는 백용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아침이면 군대에서 제대된 아들이 대학으로 가는 첫 등교길에 오르게 되는것이다.

(남편이 살아 아들의 모습을 보았더라면.)

그런데 뜻밖에도 이른아침 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그의 집을 찾아왔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것은 아들을 위해 준비한 갖가지 학용품들이였다.

대학생활의 첫 자욱을 떼는 아들에게 너의 아버지는 구역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서 생의 아름다운 추억을 남긴 참인간이였다고, 30여년세월 오직 일밖에 모르던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했다는것을 알면서도 단 한번도 출근부에 공백을 남긴적 없었다고 이야기해주며 아버지처럼 참답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백용희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지 여러해가 지났지만 나약해질세라, 지칠세라 떠밀어주고 이끌어주며 귀한 보약재도 안겨주고 남자손이 없는것을 념려하여 집꾸리는 일까지도 성의껏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들.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뜨거운 그 사랑과 정은 오늘 아들의 첫 등교길까지도 세심히 보살펴주고있는것이였다.

정다운 그 모습들을 눈물속에 안아보는 백용희의 가슴에는 이처럼 아름다운 우리 사회를 위해 힘과 열정을 다 바쳐갈 결심이 더욱 굳게 자리잡았다.

본사기자 홍 범 식

수필

행복의 사태

오늘은 귀여운 아들애의 생일날이다.

자기 생일날에는 장난감땅크를 꼭 사주어야 한다며 손가락약속까지 받아낸 아들을 생각하며 나는 퇴근길에 평양제1백화점에 들렸다.

내가 3층에 있는 장난감매대로 가기 위해 계단으로 향하는데 식료품매대에서 판매원과 한 할머니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나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였다.

《판매원처녀, 저 빵두 좀 달라구. 그것두, 또 이것두…》

《할머니, 벌써 두 구럭지가 넘는데 이렇게 많은 빵을 사서는 뭘 하자는겁니까?》

《손자녀석이 빵을 사달라고 해서 왔는데 빵의 가지수가 이렇게 많은줄 몰랐구만.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 그야말로 사태야, 빵사태. 욕심 같아서는 이 빵들을 몽땅 가져다가 손자에게 먹이고싶네.》

《호호호— 할머니, 이 빵들은 모두 맛도 좋고 영양가도 대단히 높답니다.》

《그래! 우리의것이 폭포처럼 쏟아지니 정말 기분이 좋구만. 신발매대에 가면 신발사태요, 가방매대에 가면 가방사태, 또 이렇게 식료품사태까지 쏟아지니 마음이 흐뭇하구만.》

사태!

할머니가 흥에 겨워 무심히 한 말이였지만 그 부름이 나의 가슴속에 일으킨 격정은 참으로 컸다.

사람들은 흔히 사태라고 하면 이상기후현상이나 자연재해로 하여 인간이 당하게 되는 재난과 불행을 먼저 생각할것이다.

그러나 할머니가 너무도 스스럼없이 말하는 사태는 결코 불행의 사태가 아니라 이와는 너무도 상반되는 행복의 사태였다.

행복의 사태!

다시금 마음속으로 곱씹으려니 불현듯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안겨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어느해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준공을 앞둔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찾으시여 일군들에게 인민들이 여기에 와서 스키운동이나 승마운동을 한 다음 실내온천장에서 온천욕을 하면 좋아하겠는가고 물으시였다고 한다.

한 일군이 사람사태가 날것 같다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사람사태라, 행복의 사태겠지.》**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좋아할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환하게 웃으시였다고 한다.

얼마나 기쁘시고 만족하시였으면 우리 원수님 행복의 사태라고 그렇듯 뜨겁게 되이셨으랴.

진정 인민들에게 제일 좋고 훌륭한것을 더 많이 안겨줄 불같은 일념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 바쳐오신 헌신과 로고는 정녕 그 얼마였던가.

중평과 련포에 가면 현대적인 온실마다에서 남새가 사태처럼 쏟아져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기쁨과 격정의 파도를 불러일으키고 또 나라의 방방곡곡에서는 특색있고 멋들어진 살림집들이 일떠서 래일을 마중가는 인민들의 가슴가슴을 끝없는 기쁨과 환희로 설레이게 하고있지 않는가.

인민들이 받아안은 행복의 사태!

정녕 이것은 공화국인민들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인민이라고 불러주시며 행복과 문명을 안겨주어도 세상에서 제일 값진것으로 안겨주시려는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인민에 대한 사랑, 애국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들이다.

생각이 깊어지는 속에 문뜩 내 만일 이 땅이 아닌 날에 날마다 불행의 사태가 범람하는 남조선과 같은 불모의 땅에 떨어진 인생이라면 나나 내 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였을가 하는 생각을 하니 심장이 졸아드는것만 같았다.

지난해 남조선에서는 반지하로 사정없이 쓸어드는 비물과 감탕으로 하여 장애자인 세 모녀가 비명에 숨지는 가슴저리는 참사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목터지게 울부짖고 손끝이 닳아 피가 나오도록 창문을 허비였건만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사상으로 오염된 남조선사회는 그들을 끝끝내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운명의 길로 떠밀었다.

이를 어찌 자연이 초래한 불행이라고만 하랴.

최근 남조선에서는 자살사태, 실업사태 등 썩어빠진 사회가 잉태하고 산생시킨 온갖 불행한 사태가 그 어느때보다 더욱 가중되여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근로대중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우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커다란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는 자살의 경우만 보아도 2019년 한해동안 한강다리에서 투신자살한 사람의 수는 504명으로서 하루 1.3명이였으며 그 수는 해마다 더 늘어나 세계적으로 최고의 자살기록을 내고있다고 한다.

그러니 이를 어찌 자살사태라고 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만성적인 경제위기로 하여 실업사태가 가중되고 돈에만 신경쓰며 근로대중의 생명안전, 로동안전대책은 외면하는 극악한 로동정책으로 하여 각종 사고들이 사태마냥 꼬리를 물고일어나고있는 곳도 다름아닌 남조선사회이다.

오죽했으면 《아침에 일터로 갔다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것》이 최대의 소망이라는 근로대중의 애처로운 목소리, 절망의 한숨소리가 인사말처럼 통용되고있겠는가.

남조선에서 빚어지는 불행의 사태!

이것은 인민의 생명안전과 복리보다 돈을 첫째가는 자리에 놓고 부자들만을 위하는 썩고 병든 남조선사회가 낳은 필연적산물인것이다.

하기에 공화국에서 인민들이 피부에 뜨겁게 와닿는 사랑과 행복에 목메여 사회주의만세소리 높이 부를 때 남조선에서는 쌓이고쌓인 분노가 불러온 초불바다가 거리와 광장들을 메우며 윤석열역도의 퇴진을 요구하여 어둠을 밝히고있다.

명암처럼 대조되는 행복과 불행의 두 사태!

흔히 언어에 그 시대가 비낀다고 하였다.

그렇다. 내 조국 방방곡곡에서 끝없이 쏟아지는 행복의 사태가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여 더더욱 륭성번영해갈 우리 공화국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기쁨의 대명사라면 남조선사회를 휩쓸고있는 불행의 사태는 정치와 제도를 잘못 만나 남조선인민들이 당해야 하는 불우한 운명과 암담한 미래를 특징짓는 원한의 대명사인것이다.

나는 가슴가득 차오르는 긍지와 행복감을 안고 걸음을 옮겼다.

강 은 별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여

어릴 때부터 제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해빛이 유난히도 따뜻한 주체35(1946)년 6월 23일이였다.

일요일이였던 이날 아침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댁앞에서 평안남도당 재정경리부장 박정호와 그의 가족을 기다리고계시였다.

한참후에 정문이 열리며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위대한 수령님께로 달려와 인사를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뻐 어쩔줄 몰라하는 아이들을 사랑의 한품에 꼭 안아주시며 《오냐, 너희들이 왔구나. 그사이 몰라보게들 컸구나.》라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이애들이 장군님과 함께 들놀이를 간다고 너무 좋아서 어제 밤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박정호가 이렇게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그런가고, 애들의 청도 있고 하여 우정 시간을 냈으니 오늘은 저수지에 가서 놀고 오자고 이르시였다.

이때 박정호의 안해가 눈굽을 찍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드렸다.

《장군님, 철없는 애들의 청을 깊이 헤아려주신 그 고마운 은혜를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고마운 일이라고 할게 있습니까. 명희나 명철이가 날더러 들놀이를 가자고 얼마나 졸라댔는지 모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좋아라 매달리는 아이들에게 이르시였다.

오늘은 소원대로 경치좋은 곳에 들놀이를 가려고 한다. 가서 재미나게 놀아보자.

일행을 태운 차는 어느덧 어느한 저수지에 도착하였다.

차에서 내린 아이들은 저수지기슭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파도마냥 밀려오고 밀려가는 물결을 정신없이 바라보았다.

큰애는 호기심이 동하는지 앉아서도 보고 또 서서도 보았고 작은애는 겁이 나는지 위대한 수령님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못하였다.

아이들의 모습을 밝은 미소속에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희들 이런 곳에 처음 와보지? … 참 좋은 곳이다.》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우리 아이들은 이런 들놀이가 처음입니다.》

박정호의 말을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무릎우에 앉아 재롱을 부리는 작은애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이렇게 이르시였다.

아이들에게 들놀이도 조직해주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제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커서 제 나라를 위해서 일을 잘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애들을 데리고 이곳 저수지에 온것은 그들에게 애국심을 키워주기 위한데도 있습니다.

(그러니 장군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신것은 순수 들놀이때문만이 아니였구나!)

수령님을 우러르는 박정호의 눈가에 맑은것이 고이였다.

이어 수령님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물고기도 잡으시고 어죽도 쑤어주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돌아갈 때가 되여오자 아이들은 금시 시무룩해졌다.

아이들도 위대한 수령님과 헤여지는것이 몹시 서운하였던것이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이들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시며 《이다음 시간을 내서 들놀이를 또 오자. 너희들과 약속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손가락을 걸어 약속까지 해주시였다.

본사기자 김 영 진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민족을 위한 길에 삶을 바친 목사 (4)

위인에 대한 숭배심은 충정에로 이어지는 법이다.

홍동근선생은 어버이수령님께 다진 맹세를 지켜 애국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갔다.

조국에 대한 첫 방문이후 선생은 자신이 직접 창립한 통일신학동지회, 북아메리카주협회사업도 철저히 조국을 위한 애국성업에 이바지되게 하는 립장에서 해나갔다.

성직자로서 교회의 애국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온 홍동근선생은 공화국의 신앙과 자유에 대한 몰리해로 수십년을 에돌아온 자신과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의 잘못을 놓고 뼈아프게 진심으로 반성도 하였다.

지난날의 잘못된 행적을 깨끗이 씻고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데로 교인들을 묶어세우고 발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선생은 미국사회의 온갖 세파속에서 설교를 해도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 나설것을 바라면서 교인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전심전력하였다.

그리스도교목사로서 통일신학동지회 회장, 범민련 아메리카주본부 고문, 재미동포전국련합회 고문…

이 경력이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선생의 의지와 열정을 알게 해주고있다.

특히 선생은 해외동포들에게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심어주는것을 자기의 제일가는 사명으로 간주하였다.

홍동근선생은 절세위인들에 대한 흠모심을 담은 도서 《김일성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와 《백두산의 노래》를 집필한데 이어 어버이수령님 탄생 90돐을 맞으며 도서 《김일성주석 덕성일화 100》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절세의 위인에 대한 북받쳐오르는 흠모심에 감격의 눈물이 앞을 가리웠지만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그 위대한 모습을 향해, 민족의 넋을 안아줄 따사로운 그 품을 향해 마주 달려가듯 온 심혼을 기울여 붓을 달리고 또 달리였다.

그러던 2001년 11월 조국을 방문하여 도서집필완성을 위해 긴장한 나날을 보내며 붓을 달리던 홍동근선생은 책상을 마주한채 영영 일어나지 못하였다.

절세의 위인에 대한 숭배심을 간직하고 깨끗한 애국애족의 마음을 불태우며 민족의 단합을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한 홍동근선생은 조국체류중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비보를 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몇해전 자신을 만났을 때 책을 쓰겠다고 하던 그의 모습이 삼삼히 떠오른다고 하시면서 선생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서두르는 일군들을 조용히 밀막으시고 미국에서 그의 가족이 조국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례를 치르어주자고 이르시였다.

조국에 도착하여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선생의 부인은 남편의 유해가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이르자 북받치는 격정을 더는 참을길 없었다.

홍동근선생의 부인은 이렇게 토로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돌려주신 사랑에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주인은 늘 말하기를 자기가 죽으면 조국땅에 묻어달라고 하였는데 그 소원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풀어주시였습니다. 저의 주인은 래세의 천당이 아니라 현세의 천당인 장군님의 품에서 영생하게 되였습니다.》

이렇듯 이국에서 파란만장의 세파를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홍동근선생은 인생전환의 궤도에서 민족의 단합을 위해 심신을 바쳐 일하다 조국의 품에서 빛나는 한생을 마치였다.

조국에 대한 불타는 애국심을 간직하고 민족의 단합을 위한 량심인이 되여 정력적으로 투쟁한 공로있는 애국자 홍동근, 그의 삶의 체취와 흔적은 오늘도 겨레의 마음속에 별처럼 빛나게 새겨져있다.

본사기자 전 영 민

재일동포소식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제44차대회 진행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류학동) 제44차대회가 2월 26일 총련 오사까부본부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성상기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대의원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위원회 등 조국의 대학청년동맹위원회들에서 보내온 축전이 랑독되고 축하영상편집물이 상영되였다.

대회에서는 《류학동중앙위원회 사업보고에 대하여》, 《류학동규약을 일부 개정할데 대하여》, 《류학동 제43기 재정결산 및 제44기 예산안에 대하여》, 《제44기 류학동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중앙위원선거에 대하여》의안들이 토의되였다.

성상기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총화기간 류학동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력사적서한관철의 첫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린데 대해 언급하였다.

악성전염병의 대류행속에서도 일군들과 동맹원들의 각종 강습들을 진행하고 학생일군대렬을 확대하였으며 지부건설사업도 활발히 벌려 17개 지부를 재건활성화하여 모든 지부를 튼튼히 꾸리는 귀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지난해 9월 종합문화공연 《종달새》를 성과적으로 조직진행하여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일군들과 동맹원들의 불같은 결의를 과시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류학동사업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서한관철에 철저히 복종지향시키며 조직이 동포대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성심성의로 도와주는 사업, 동포청년학생들속에서 민족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 3대애국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동맹대렬을 확대해나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사업보고를 대회결정으로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둘째 의안과 셋째 의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심의결과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

대회에서는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성상기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김상현부위원장이 다시 선출되였다.

애국위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며

얼마전 일본의 효고현에서 《2023년 녀성동맹 년초학습》이 진행되였다.

총련의 지부와 분회일군들, 각 학교의 어머니회성원들을 비롯하여 130여명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새해축전이 랑독된 다음 모임에서는 조국에서 진행된 신년경축대공연의 한 종목인 《우리의 국기》의 편집물시청에 이어 《공화국을 둘러싼 내외정세와 재일동포사회》라는 제목으로 강연이 진행되였다.

강연에서 강사는 현 국제정세와 2022년을 위대한 승리의 해로 장식하고 올해를 전환과 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조국인민들의 투쟁, 총련 제25차 전체대회를 계기로 약동하는 재일동포사회에 대하여 해설하고 강령적서한관철을 위한 전형창조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녀성동맹본부 위원장이 올해 주력할 사업에 대하여 해설하고 모든 일군들과 열성동포들이 동포제일주의로 분회를 더욱 활성화하며 민족교육의 고수발전과 민족성을 대를 이어 지켜나가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수령복을 누리는 우리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새 힘이 났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사업해나가겠다.》고 결의하였다.

조선인학살의 진상을 밝힐것을 요구

간또대지진 조선인학살 100년이 되는 올해에 관련행사들이 일본 각지에서 진행되는 속에 얼마전 도꾜에서 재일동포들과 일본시민들이 참가한 집회가 진행되였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간또대지진 조선인학살이 있은 때로부터 100년이 되여오지만 오늘까지도 국가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은폐, 외곡하려는 일본당국의 그릇된 태도에 경종을 울린다고 하면서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학살된데 대해 까밝혔다.

이어 당시 조선인학살을 목격한 20여명의 재일조선인들의 증언을 보여주는 영화가 상영되였다.

영화제작을 맡았던 연출가는 영화가 나온지도 벌써 40년이 지났지만 조선사람들이 학살당한 간또대지진이 있은지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 일본정부가 진상규명을 진행한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규탄하였다.

상영회이후 진행된 강연회에서 발언자들은 40여년에 걸친 자료수집과 증언조사를 통해 확인된 조선인학살의 진상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현재까지도 간또대지진 조선인학살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은 일본정부가 사실을 은폐하고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되게 될 간또대지진 조선인학살관련행사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것을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지배와 굴종, 범죄의 력사는 감출수 없다

식민지예속화를 다그치려는 교활한 술책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진출 특히 10월인민항쟁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크게 뒤흔들어놓았다.

당시 맥아더는 《미군정에 대한 증오가 공공연히 증대되고있으며 미국에 의해서 취해지는 어떤 조치도 미군정을 연장하거나 미국을 위해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또 하나의 조치라고 맹렬한 비판과 선전을 받고있다.》(《미국외교문서 1946년》 조선편)고 저들이 처한 위기의 심각성에 비명을 올리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이 처한 심각한 위기에서 헤여나기 위하여 상투적수법인 량면술책에 매여달렸다.

미군정은 1946년 10월과 11월에 군정법령 121호 《최고로동시간에 관한 건》을 비롯한 두개의 법령을 황급히 공포하여 형식적으로 8시간로동제를 선포함으로써 민주주의적로동법령의 실시를 요구하는 남조선로동계의 요구를 무마해보려고 하였다.

뒤이어 저들이 조작한 《과도립법의원》에 《식량물가대책위원회》, 《적산대책위원회》, 《부일협력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위원회》 같은것들을 만들어 마치도 식량위기와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개선하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단하는데 관심을 가지고있는듯이 근로대중에게 환상을 조성하려고 꾀하였다.

또한 《농지개정법초안》이란것을 내들고 민주주의적토지개혁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대중적진출을 무마해보려고 기만극을 벌렸으며 1948년 3월에는 《신한공사》의 《적산토지》를 《불하》하는 법령을 발포하였다.

그런가 하면 1947년 10월 《공창폐지법》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신한공사》의 《토지불하》는 남조선농민들의 대중적진출을 가로막고 봉건적생산관계를 부분적으로 다시 편성하기 위한 기만극에 불과한것이였고 《공창》 역시 미군정의 공공연한 묵인밑에서 계속 존속되였다.

우와 같은 미제의 기만적조치들과 정치적모략극들은 심각한 통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교활한 술책으로서 미국의 진짜 속심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해나서는데 있었다.

당시 맥아더가 비밀보고라는데서 10월인민항쟁으로 《…외부지배에 대한 조선인의 당면한 반감》이 증대되고 《…실제 혁명을 유발할는지 모르는》 긴박한 정세에 대처하여 《이곳의 미군을 지체없이 편제상병력으로 충당할것.》, 《점령군과 경찰 및 경비대를 증원지원할 우익청년군을 창설할것.》, 북조선을 반대하는 《반공》선전을 《…고위급에서 발표할것.》 등 제조치를 시급히 취하여야 한다(《미국외교문서 1946년》 조선편)고 줴쳐댄것은 이를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미제는 이렇게 민주력량에 대한 새로운 반혁명적폭압공세를 준비하면서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하여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위협》을 떠들며 《반공》깜빠니야를 시작하였다.

초대군정장관이였던 아놀드는 《…38°선에 〈철의 장막〉이 드리워졌다.》는 독설을 퍼부으면서 공화국에 대한 비방중상을 일삼았고 이 《반공》깜빠니야를 계속 연출하기 위하여 하지와 리승만역도를 워싱톤으로 불러들이였다. 하지는 미국회의 《원조》문제공청회에서 남조선단독《정부》를 세울 계획을 공공연히 들고나오는 한편 《북이 50만대군을 준비하였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리승만역도 역시 《내전의 위험》이라는 허황한 선전을 일삼으면서 《남조선에 단독〈정권〉이 서면 바로 그 〈정권〉에 의해서 전 조선을 통일할 가능성이 있다.》고 민족분렬과 북침도발의 흉악한 속심까지 털어놓았다.

이 도발적인 《반공》소동은 남조선인민들속에 위기의식을 인위적으로 고취하여 그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 위기에 처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수습하고 나아가서는 남조선에 단독괴뢰정권을 조작하고 조선에서 새 전쟁을 준비하려는 미제의 침략적흉계를 보여주는것이였다.

교활한 량면술책에 매달려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밀고나간 미제는 1946년말~1947년초부터 로동자들을 비롯한 근로대중에 대한 새로운 반동공세를 발광적으로 벌리였다.

김 광 억

민심에 역행하는자들은 비참한 파멸을 면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3.15부정선거를 반대배격하는 대중적인 투쟁이 일어난 때로부터 63년이 되여온다.

다 아는바와 같이 1960년 3월 15일 리승만독재《정권》은 극악한 1인파쑈독재를 연장하기 위해 온갖 테로와 협잡으로 《대통령》당선을 날조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분노를 폭발시켰다. 리승만독재《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은 마산에서부터 타올랐다.

협잡선거의 더러운 장면을 목격하고 격분을 참지 못한 경상남도 마산의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은 《협잡선거 물리치고 공명선거 실시하자!》 등의 구호를 웨치며 시위투쟁에 떨쳐나섰다. 시위군중에 대한 폭압에 동원된 남조선군대와 경찰이 총탄과 최루탄을 마구 발사하는 속에서도 투쟁은 날로 더욱 확대되여갔다.

4월 11일 마산앞바다에서 최루탄에 맞아 무참히 학살된 김주렬학생의 시체가 발견된것을 발단으로 제2차 마산봉기가 일어나고 여기에는 수만명의 군중이 참가하였다.

마산시민들의 불굴의 투쟁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대중적항쟁의 서곡으로 되여 4.19인민봉기로 발전하였으며 마침내 리승만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야말았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봉기자들이 피흘리며 절규하던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는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친미친일매국집단인 윤석열역적패당에 의해 미국의 식민지통치가 더욱 심화되고 천년숙적인 섬나라것들까지 예속의 마수를 깊숙이 뻗치고있다.

또한 군사파쑈독재시대의 법적, 제도적장치들이 되살아나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각계층의 투쟁이 가혹한 탄압을 당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경제는 더욱 엉망진창이 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련이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북침전쟁연습들도 이 땅에 핵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역적패당의 반민족적망동이다.

현실은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선행독재자들도 무색케 할 사대매국세력이고 파쑈광, 대결광, 호전광들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은 사대매국과 파쑈, 반인민적악정과 전쟁대결책동으로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재앙을 몰아오는 윤석열역적패당을 반대배격하는 투쟁에 너도나도 떨쳐나서고있다.

이들은 투쟁구호를 《윤석열퇴진》에서 《윤석열타도》로, 투쟁형식을 《운동》에서 《항쟁》으로 전환하고 반윤석열, 반《정부》투쟁도수를 날로 더욱 높이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을 반대배격하는 투쟁은 남조선뿐 아니라 해외지역에서도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희망련대》를 비롯한 해외동포운동단체들이 적극적인 련대를 실현하여 《윤석열역도퇴진》투쟁기운을 높여나갈것을 결의해나섰다.

얼마전에는 카나다, 프랑스를 비롯한 아메리카와 유럽지역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안주 등 10여개 나라와 40여개 도시의 해외동포들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되살리며 조선반도평화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해외초불행동》을 결성하고 《윤석열역도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윤석열역적패당을 단죄규탄하는 초불집회와 시위들을 련이어 진행하고 그 소식을 현지언론들과 인터네트를 통해 널리 여론화하며 남조선에서 진행되고있는 반윤석열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사대매국과 파쑈, 반인민적악정과 전쟁대결책동에 매달리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이 민심과 여론의 거세찬 규탄배격을 받고 리승만역도와 같이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되리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옥 철 웅

리승만동상을 거꾸러뜨려 끌고다니는 남조선인민들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위험천만한 망동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내외의 규탄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13일부터 23일까지 그 무슨 《자유의 방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있다.

이를 위해 지난 6일부터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연습》이라는것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지난 시기와 달리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전 기간 공격훈련으로 진행되며 더우기 《북지역점령 및 안정화작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인것이다.

지난 시기에 상투적으로 내걸었던 《방어》의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합동군사연습의 전 과정이 공격으로 일관된다고 내놓고 떠들어댄것이야말로 그들의 극도에 이른 반공화국대결광증, 북침전쟁광증을 드러낸것이다.

실제로 이번 연습기간에는 지휘소연습과 함께 사단급규모의 련합상륙훈련, 련합특수작전훈련을 비롯한 20여개의 야외실기동훈련이 과거 《독수리》합동군사연습수준에서 강도높게 벌어진다고 한다. 모두가 북침공격을 위한 실기동훈련들이다.

더우기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연습을 앞두고 미전략자산들을 동원한 련합공중훈련과 특수작전훈련을 벌려놓았다. 그리고 언론들을 통해 이번 연습기간 미핵동력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동시에 조선반도에 전개될수 있다는 여론을 내돌리며 정세를 최대로 격화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한마디로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각종 전략자산들과 침략무기들로 꽉 채우고 공화국을 침략하고 점령하기 위한 작전행동들을 숙달한다는것이다.

이것은 내외호전세력이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임의의 순간에 북침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 한다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대규모병력과 첨단장비들이 다 동원되여 실전을 가상하여 벌어지는 이번 전쟁연습이 어떤 파국적후과로 이어질지는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현실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군사적긴장을 날로 격화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 위험한 세력이 과연 누구인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오판하고있다.

최강의 핵보유국을 상대로 군사적대결기도를 드러내는것만큼 어리석고 우매한 짓거리는 없다.

공화국의 강위력한 전략적힘과 초강경대적의지에 겁을 먹고 리성을 잃은자들이 무분별한 군사적광태를 부리며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 핵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달려고 책동하는것은 자멸의 시간을 단축할뿐이다.

남조선호전세력이 미국의 부추김밑에 새해벽두부터 《전쟁준비》, 《일전불사》, 《확전각오》 등의 호전적망발을 줴치고 미전략자산들을 수시로 끌어들이며 그 누구를 놀래워보려 하지만 그것은 하루강아지의 객기에 불과하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저들의 북침불장난소동이 초래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정혁

자멸을 재촉하는 호전광들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이 미일상전과의 군사적결탁에 더욱 매달리고있다.

역적패당이 얼마전 조선동해 공해상에서 미국, 일본과 미싸일요격합동훈련을 실시한것과 경상북도 성주지역에 배치된 미군의 고고도요격미싸일체계 《싸드》기지 운영정상화를 위해 복작대고 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날로 고도화되는 공화국의 군사적위력과 실전능력대비태세에 전률한자들의 어리석고 무모한 짓거리가 아닐수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에 대처하여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것이라는 공화국의 선언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만약 역적패당이 초보적인 분별력이라도 있다면 제 처지가 어떠하고 또 상대가 누구인가를 늦게나마 판별하고 자중자숙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사실이 보여주는것처럼 공화국의 초강력적인 군사적공세에 얼혼이 나가 벌벌 떨면서도 넝마짝이 된 체면을 부지해보려고 허세와 객기를 부리는 미국과 일본것들에게 매달려 어떻게 하나 대결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얼간이같은 추태를 부리고있는것이다.

그야말로 제 죽을줄도 모르고 마구 짖어대고 물고뜯으려는 미친개의 짓거리 그대로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과 일본을 등에 업고 공화국에 비한 저들의 군사적렬세를 만회하고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화약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망동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북은 유사시 미국본토에 대한 전략핵타격능력을 과시하였다. 북의 이러한 타격능력을 사전에 탐지하는것은 불가능하며 미국의 미싸일요격체계는 이미 무력화되였다.》, 《북의 핵전략과 미싸일타격범위가 나날이 복잡해지고있다.》, 《고도화된 북미싸일에 대한 대응타격은 불가능하다.》

바로 이것이 윤석열역적패당이 하내비처럼 섬기며 명줄을 걸고있는 미국상전의 실토이며 내외의 목소리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추구하는 미국,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은 절대적힘, 초강력을 비축한 초대강국, 최강의 핵보유국을 상대하지 않으면 안되는자들의 숙명적인 불안감, 그리고 저들의 전쟁대결책동이 불러올 파국적후과에 대한 근심고민과 피해의식의 발로로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는 해괴한 작태이다.

그것은 또한 미국의 침략적인 인디아태평양전략실현의 돌격대로 나서고 일본의 재침책동에 날개를 달아주는것으로서 저들의 국제적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남조선을 주변나라들의 군사적타격의 대상으로까지 만드는 광태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이 미일상전들과의 《안보협력》강화에 매달리는데 대해 미국,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면 할수록 주변국들의 눈밖에 나고 《안보불안》은 해소될수 없다, 미국이 국제분쟁지역들에 남조선을 끌어들이려 하고있어 외교적처지가 더욱 난처해지고있다, 《〈한〉미일안보협력강화로 제일 큰 리득을 보는것은 일본이다.》라고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으로 얻을것이란 비참한 파멸을 더욱 앞당기는것뿐이다.

본사기자 황금숙

《합동군사연습이 안보위기를 불러오고있다》

최근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이 남조선내부의 《안보불안》을 급격히 고조시키고있다.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은 북이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적압박움직임에 더 강력한 군사적조치로 대응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이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에 전개하고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련이어 벌리고있지만 오히려 남조선에서의 《안보위기》가 급격히 악화되고있다고 전하면서 《북이 전략 및 전술핵무기체계의 전투적성능과 신뢰성, 운용민음성을 확증하고 남조선과 일본의 미군기지들은 물론 미국본토전역에 대한 타격능력을 과시하였다.》고 크게 떠들고있다.

특히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5》형발사에 대하여 《북은 미국의 행동과 전략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전략적주패장을 가지게 되였다.》, 《미국은 북비핵화를 론하기 전에 북의 핵미싸일공격시 어떤 타격수법을 적용하겠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였다.》고 평하고있다.

그러면서 《북의 미싸일위협과 핵전략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이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전개하여 북을 어째보려고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북이 초강경군사적조치들을 취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였다.》,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이 결국 안보위기를 불러오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이 대북군사적압박에만 매달린다면 조선반도정세를 걷잡을수 없는 지경에 몰아넣을수 있다.》 등으로 불안과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사실들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매달리고 윤석열역적패당이 그에 추종하는한 조선반도의 정세긴장은 더욱 격화될것이며 조선반도정세악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에게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말말말 개탄과 분노의 목소리

▷《우리가 〈건폭〉(건설폭력)이면 윤〈정권〉은 〈검폭〉(검찰폭력)인가.》

윤석열역도가 건설로조를 《건폭》(건설폭력)이라고 비하하면서 로동계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흉계를 드러낸것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8일 건설로조 위원장이 한 성토.

▷《매국노 리완용과 윤석열의 말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일제강점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식민사관이다.》

일본이 과거의 군국주의침략자로부터 《협력하는 동반자》로 변하였다고 줴친 윤석열역도의 《3.1절기념사》에 대해 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비난.

권력쟁탈에 환장한 시정배들의 란투극

남조선에서 당권이라는 뼈다귀를 놓고 날과 달을 이어오던 《국민의힘》내부에서의 아귀다툼이 친윤석열파의 인물이 당대표로 당선되는것으로 일단락되였다.

《〈국민의힘〉 3.8전당대회 선거운동이 〈흑색선전란타전〉으로 막을 내렸다.》고 남조선언론들이 평한바와 같이 당대표선출을 위한 지난 선거과정은 말그대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야심가들의 추악한 개싸움질의 련속이였다.

단순히 말싸움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평한대로 《인격살인》전투였고 누가 누구를 하는 생존경쟁의 살풍경이였다.

《패륜》, 《좁쌀》, 《불안한 후보》, 《거짓말능수》, 《능력미달자》…

이 너절한 싸움판에서는 네 편, 내 편이 따로 없었고 너 아니면 나였다.

과거의 친교나 《은혜》는 뒤전에 놓고 상대를 쓰러뜨려야 한다는것이 이번 선거의 론리이고 법칙이였다.

옷을 털면 털수록 떨어지는것은 먼지뿐이라고 그 과정에 부동산투기, 《색정소설창작》과 같은 후보들의 퀴퀴한 부패만 더욱 부각되기도 하였다.

권력에 얼마나 환장하였으면 투표 마지막날까지도 《당대표후보사퇴》니, 《고소고발》이니 하며 침방울을 튕기는 개싸움질을 연출하여 보는 사람들마다 도리머리를 젓게 하였겠는가.

동물세계에서나 찾아볼수 있는 이 약육강식의 개싸움질이야말로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당권장악에만 환장이 되여 동상이몽하는 더러운 위선자무리, 다음해 《총선》에서의 《공천》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는 권력야심가들의 추악한 면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권력에 대한 야심과 미련은 야당이라고 다를바없는듯하다.

《더불어민주당》내에서도 당대표의 사퇴문제를 둘러싸고 파벌들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표면화되면서 당내부가 심각한 분렬위기에 빠져들고있다.

다름아닌 《국회》에서 가까스로 철회당한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때문이다.

당내부의 친리재명파는 《국회》에서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밝혀내여 래년에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 후보추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떠들고있으며 반대파들은 당대표때문에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썼다고 주장하면서 당대표의 사퇴를 들고나왔다.

말로는 《단결》과 《혁신》을 떠들지만 목적은 당내의 자파세력확장이라는것이 세간의 평이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당대표《체포동의안》처리를 계기로 드러난 《더불어민주당》의 내부갈등이 진화될 가망이 없는 산불로 되였다고 하면서 이번 표결로 당지도부의 균렬이 드러난것만큼 다음기 원내대표선거도 파벌들사이의 세력싸움으로 번져질것이라고 분석하고있다.

권력을 앞에 놓고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이런 사이비정객들때문에 민생이 망가지고 사회가 점점 더 어지러워지는것이 아니겠는가.

정쟁과 파쟁은 고칠수 없는 남조선정치계의 악습이겠지만 최근의 남조선정치상은 그 후진성과 비도덕성이 더 진화되였음을 여실히 드러내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대담 날로 고조되는 반윤석열투쟁기운

최근 남조선에서 반윤석열투쟁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사기자가 조국통일연구원 연구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 자: 현재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반윤석열투쟁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볼수 있는가?

연 구 사: 새해에 들어와 더더욱 악랄해지는 윤석열역도의 반인민적악정에 분노한 남조선의 시민운동단체들은 윤석열《정부》가 《대국민선전포고》로 권력유지야망을 드러냈다, 이를 주민들의 힘으로 짓뭉개버리겠다고 하면서 현 시국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반윤석열투쟁구호를 《퇴진》에서 《타도》로 바꾸었다.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역도를 파멸시킨 지난 시기의 인민봉기, 항쟁들을 재현하여 보수《정권》을 타도하겠다고 하면서 투쟁형식도 《운동》에서 《항쟁》으로 전환하였다.

기 자: 반윤석열투쟁에 참가하는 인원수도 날로 늘어나고있다고 하던데.

연 구 사: 그렇다. 지난해만 하여도 대부분 토요일을 비롯한 주말에 제한적인 규모에서 진행되던 투쟁들이 남조선전역에서 매일같이 수만~수십만명이 참가하는 대중적투쟁으로 확대되고있으며 투쟁에 참가한 각이한 운동단체들은 초불이 수백만으로 타오를수 있도록 각계층이 합세할것을 적극 호소하고있다.

반윤석열투쟁의 형식도 다양해지고있다.

초불시위는 물론이고 주민들을 궐기시키기 위한 격문 및 선언문, 《대국민호소문》 등이 발표되고 인터네트에 《초불행동TV》를 개설하고 각계층의 초불투쟁을 24시간 방영하여 누구나 아무때나 시청하도록 하고있다.

특히 40여명의 초불운동단체 성원들은 2월 18일부터 서울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지역별 초불운동단체들과의 련대를 통해 단식투쟁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며 초불집회를 매일 진행하는것과 함께 서명운동, 《대통령실》앞에서의 1인시위 등을 전개하고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것처럼 초불투쟁마당에서는 윤석열역도와 그의 녀편네,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천공스승》, 역도의 심복들의 사진, 인물모형들에 대한 활쏘기, 망치로 부시기, 《부작》 붙이기 등의 다양한 풍자유희들도 벌어져 역적패당을 당황망조케 하고있다.

기 자: 반윤석열투쟁은 해외에서도 광범히 벌어지고있지 않는가.

연 구 사: 그렇다. 올해에 들어와 해외지역에서 반윤석열투쟁이 더욱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희망련대》를 비롯한 해외운동단체들은 여러 나라들에서 사는 해외동포들과 해외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세계 각지 해외동포들과의 적극적인 련대를 실현하여 윤석열역도퇴진투쟁열기를 높여나갈것을 궐기해나섰다.

윤석열역도퇴진투쟁은 아메리카와 유럽지역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안주 등 해외동포사회에 급격히 확대되고있다.

기 자: 해내외에서 벌어지는 반윤석열투쟁에 대한 역적패당의 태도는 어떠한가?

연 구 사: 해내외에서 벌어지는 반윤석열퇴진투쟁이 날로 더욱 고조되는데 당황망조한 역적패당은 대내적으로는 야당과 《민주로총》을 비롯한 진보세력을 강경진압하기 위한 파쑈탄압에 광분하고 반공화국전쟁소동으로 《안보불안》을 더욱 고조시키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실현에 적극 추종하고 친일사대매국행위에 더욱 골몰하면서 통치위기의 출로를 찾아보려 하고있다.

기 자: 하지만 그것은 종말에 이른자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다고 본다. 대학들에서는 윤석열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자보》게시운동이 벌어지고 지어 인터네트에 역도를 살해하겠다는 글까지 오르고있으며 역도와 그 졸개를 겨냥한 풍자유희가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현실은 박근혜역도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던 때와 다를바없지 않는가.

연 구 사: 바로 그렇다. 이미 민심은 윤석열역도에게 파멸을 선고했다. 민심은 친심이라고 남조선인민들의 환멸과 증오의 대상이 된 역적패당의 파멸은 불가피하며 비참한 종말의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고 본다.

특등친일매국노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이 추악한 친일망언들을 함부로 내뱉으면서 일본의 피비린내나는 과거죄악을 묵인비호하다 못해 일본반동들과 공화국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에 광분하여 내외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3월 1일 윤석열역도는 그 무슨 《기념사》라는데서 우리 민족의 천년숙적인 일본이 군국주의침략자에서 《협력하는 동반자》로 변했다면서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범죄를 합리화하고 관계개선을 구걸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3월 6일에는 남조선 각계층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거죄악에 대한 공식사죄와 배상을 부정하는 일본의 강도적요구에 굴복하여 저들이 일본전범기업대신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친일굴종적인 《배상방안》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더욱 격분을 자아내는것은 역적패당이 《독도령유권》을 주장하는 일본당국이 강도적론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꾸며낸 《다께시마의 날》에 독도주변해상에서 미국, 일본것들과 련합해상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고 북침전쟁도발에 날뛴것이다.

실로 남조선인민들로부터 《21세기의 리완용》이라고 저주받는 윤석열역도만이 저지를수 있는 추악한 친일매국행위가 아닐수 없다.

100여년전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애국정신이 높이 떨쳐진 3월 1일에 윤석열역도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축복》이였다고 떠벌이는 현 일본반동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추궁도, 비난도 하지 못하고 거꾸로 《가치공유의 동반자》이니, 《안보위기극복을 위해 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느니 하며 역스러운 나발을 불어대였으니 민족의 피와 넋이란 꼬물만큼도 없는 이런 친일매국역적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련일 규탄성명, 론평발표 등을 통해 《3.1절기념사가 아니라 토착왜구의 친일선언》, 《민족적자존심을 짓밟은 치욕적망언》, 《3.1절을 친일절로 만든 신호탄》, 《침략자를 협력동반자로 세탁해주는 21세기 매국노》라고 규탄하며 역도의 친일매국배족행위에 대한 치솟는 저주와 울분을 터뜨리고있다.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굴욕적인 배상방안을 놓고 윤석열역도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가기 위한 결단》, 《피해자의 립장을 존중》, 《량국공동의 리익과 미래발전에 부합되는 방안의 모색결과》라고 말장난을 부리고있는데 대해서도 남조선 각계는 최악의 굴욕적인 대참사라고 준렬히 성토하고있다.

남조선야당들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과 시민들은 긴급항의행동, 항의시위, 기자회견을 통해 《3월 6일은 치욕의 날, 제2의 〈경술국치의 날〉이다.》, 《윤석열이 한일합병조약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리완용매국노와 무엇이 다른가.》, 《민중은 일본의 과거죄악을 덮어버리려는 윤석열역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역적패당이 미국, 일본것들과 독도주변해상에서 련합군사훈련을 벌려놓은데 대해서도 《홍사단 독도수호본부》, 《활빈단》 등 각계층 단체들과 시민들은 일본대사관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굴욕외교, 매국외교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친일매국무리 청산하자.》고 웨치고 윤석열역적패당이 《〈독도령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것들에게 항변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일본이 고창하는 〈다께시마의 날〉에 일본〈자위대〉와 함께 군사훈련을 벌려놓았다.》면서 강력히 규탄해나서고있다.

현실은 사대와 굴종, 친일매국에 명줄을 걸고있는 극악한 친일매국노, 《21세기의 리완용》인 윤석열역도로 하여 일본반동들은 더욱 오만해지고 조선반도재침광기는 극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친일굴종적, 매국배족적망동과 범죄적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으며 반드시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배영일

조선미술박물관을 찾아서

부드럽고 섬세한 필치, 생동한 형상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조선화가 두드러지게 발전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조선화는 힘있고 아름다우며 고상한 자기의 화법을 잘 살리였는데 대체로 자연을 묘사하면서 그 표현수법을 세련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김금희강사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 명성이 자자했던 안견의 작품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안견은 인물, 풍경, 동물 등 그 어느 그림이나 막힘없이 잘 그렸지만 특히 풍경화는 그의 특기였다고 한다.

그의 그림들은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것이 특징이다.

구름속을 헤쳐나오는 룡의 기상이 맥박치는 그림 《룡》에서는 안견의 부드럽고 힘있는 필치가 생동하게 안겨왔다. 비록 환상적인 동물이지만 짐승의 특징들을 잘 파악하고 그린것으로 하여 마치 룡이 살아움직이는듯한감을 주었다.

전시된 그림들을 돌아보던 우리는 어느한 그림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당시 류행되던 묵화와는 달리 채색화로 그린 그림이 눈길을 끌었던것이다. 가지에 붉게 핀 석죽화를 곁들여 색의 조화를 이루면서 부드럽고 섬세한 필치로 그린 작품인 《가지》는 조선봉건왕조시기 시와 글씨, 자수로 뛰여났던 녀성화가 신사임당이 그린것이였다.

《이 그림이 〈룡을 낚는 사람〉입니다. 화가는 알려져있지 않지만 화면에는 오랜 옛날부터 신비화하면서 감히 범접할수 없다고 하던 룡을 인간의 힘으로 낚아내는 모습이 힘있는 필치로 형상되여있습니다.》

그림속의 꿈틀거리는 룡과 출렁이는 물, 폭풍같은 센 바람을 시사하는 휘여든 나무줄기와 흩날리는 잎사귀, 두발을 힘껏 버티고 룡을 잡아채는 인물형상은 사람의 무궁한 힘과 지혜, 용맹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었다.

이밖에 동물화분야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리암의 그림들인 《고양이와 강아지》, 《나무에 오른 고양이》는 너무도 생동하여 절로 감탄이 흘러나왔다. 이곳 박물관에는 고려청자와 더불어 이름났던 조선봉건왕조백자기와 여러가지 문방구들도 전시되여있었다.

본사기자 리 철 민

《가지》

《나무에 오른 고양이》

《룡》

202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 (2)

청천강체육단 력기선수 로 광 렬

로광렬은 세계선수권보유자, 올림픽금메달수상자가 될 열의를 안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였다.

하기에 그는 선수생활을 시작한 때로부터 몇년만에 국내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후에 진행된 국제경기에서도 금메달을 쟁취할수 있었다.

지난해에 진행된 국내경기들에서 훌륭한 경기모습을 보여주어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였다.

4.25체육단 력기선수 송 국 향

송국향은 국내경기에 처음으로 출전하여 놀라운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후 그는 국제경기에 처음 참가하여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019년 아시아청소년 및 청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도 아시아청년 새 기록들을 세웠다. 지난해에 열린 국내경기들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였다.

4.25체육단 력기선수 김 일 경

김일성소년영예상수상자인 김일경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처음 참가한 국제경기인 2017년 세계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의 단상에 올랐다. 그는 2018년 아시아청소년 및 청년력기선수권대회와 2019년 아시아청소년 및 청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는 지난해에 열린 국내경기들에서도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을 놀래우는 특출한 성과를 쌓은것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였다.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국 가종합훈련소 태권도선수 김 류 경

김정일청년영예상수상자인 김류경은 2019년에 이어 202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였다. 13살때부터 태권도기초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그는 2년후 국내경기에서 우승하였다. 그후 그는 제21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나라별종합순위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지난해에 진행된 국내경기들에서도 그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4.25체육단 축구선수 위 정 심

인민체육인인 위정심은 2019년에 이어 202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였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하여 국제경기들에서 련이어 우승하는데 크게 기여한 그는 보다 높은 기술을 소유하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지난해에 진행된 경기들에서 그는 자기의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경기성과를 확대하는데 이바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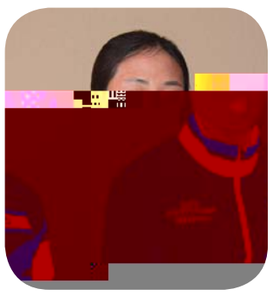
본사기자

로 광 렬

송 국 향

김 일 경

김 류 경


위 정 심

조선의 국화—목란

국화는 해당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꽃이다.

국화는 해당 나라의 풍토와 문화, 사람들의 생활관습과 밀접한 련관을 맺고있다.

조선의 국화는 목란꽃이다.

넓은잎키나무 혹은 떨기나무인 목란꽃은 높이가 2~5m이고 꽃의 직경은 7~10㎝이며 5~6월경에 향기로운 흰 꽃이 핀다.

목란꽃의 아름다움과 향기, 생리학적 및 형태학적 특징에는 조선민족의 슬기와 기상이 다 담겨져있다.

정갈하면서도 맑고 깨끗한 목란꽃의 빛갈과 아름다운 모양은 우리 민족의 순결하고 고상한 정신세계와 함께 뛰여난 지혜와 재능을 상징하고있다.

고급향료, 귀중한 약재로도 쓰이고 풍부한 기름원료로도 리용되는 목란꽃에는 자신을 바쳐 서로 돕고 위해주는것을 하나의 미덕으로 여기고있는 우리 민족의 인간적향기와 우수한 도덕품성이 담겨져있다.

단일품종으로서 어느 지방에 심어도 꽃의 형태와 크기, 색갈이 다 같은 목란꽃의 특성은 한강토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며 결백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이며 그 어디에 가서도 민족성을 고수해나가는 우리 민족의 기질과 일치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몸소 이 꽃의 이름을 《목란》이라고 지어주시고 목란꽃은 꽃가운데서 왕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며 목란꽃을 공화국의 국화로 정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목란꽃을 찾아주시고 널리 심고 잘 관리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진정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민족의 넋과 기상을 상징하는 조선의 국화 목란꽃은 온 나라에 만발하고있다.

본사기자

밝고 다양한 옷도안창작에 힘을 넣는다

옷은 사회의 문명을 보여주는 수단의 하나로 되고있다.

옷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있는 속에 공화국의 피복부문과 련관부문의 단위들에서 《녀성옷전시회—2022》의 성과와 경험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지방공업성 피복연구소에서는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밝고 다양한 옷차림문화가 사회전반에 흐르도록 하기 위해 힘쓰고있다.

어두운색을 피하고 밝은색계렬의 옷들을 만들며 나이와 몸매, 기호에 따르는 형태와 형식도 비반복적이며 독특하게 하는것이 선진적인 옷도안창작의 핵심으로 되고있다.

이곳 연구소에서는 남녀옷형태와 설계자료를 만들어 피복부문의 전문가들에게 보급한데 기초하여 《녀성옷전시회—2022》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제품들과 새로 창작한 제품들을 옷도안에 담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 강건너 불보듯

벌어지는 일에 주인답게 관계하지 않고 관조적립장에서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막내동이 응석받듯

응석을 부려도 탓하지 않고 하는대로 받아줌을 비겨 이르는 말.

❖ 소댕으로 자라 잡듯

소댕을 들고 와서 자라를 잡았다고 하듯이 그저 비슷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에 비겨 이르는 말.

사 화

밥맛을 돋구어주는 토장 (2)

글 전 철 호, 그림 채 대 성

그의 속을 들여다본듯 백발로인이 말했다.

《난 말이요. 왕검성에서 사는 의원일세. 병자들을 찾아다니다가 예까지 왔네. 자네는 나를 몰라도 난 자네를 아네. 자네가 젊었을적에 군공을 세우고 왕검성에 입성하여 상도 받고 활도 쏘는걸 보았거던. 그때 난 몹시 놀랐네. 자네는 백보앞에 세운 과녁에 다섯순(25대)이나 화살을 날려 몽땅 명중시키지 않았나. 그때 온 성안사람들이 환성을 올렸지. 정말 보기 드문 명궁이였어. 그러니 〈박달곶촌명궁〉을 내가 잊을리 있겠나. 참, 그때 내 나이가 예순살이였어.》

고달은 크게 놀랐다. 백발로인의 기억력도 놀라웠지만 보다는 그의 나이가 많은데 더욱 놀라웠다. 왕검성에 가서 상을 받고 활쏘기를 한 때가 아마 스무해전일것이다.

《그럼 의원님은 여든살?…》

《그렇네. 난 여든살이 넘었네.》

고달은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원, 세상에 사람이 여든살을 넘어 살수도 있단 말인가.

백발로인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방안을 울리였다.

《자네 밥이 지팡막대란 말 들어보았나? 제꺽 대답못하는걸 보니 그런건 생각밖인 모양이군. 요즘 사람들이 마흔도 되기 전에 세상을 등지는건 사실 늙어 명이 진해서가 아닐세. 그건 다 병이 들어서일세. 병이 원쑤이거던. 사람이 병들지 않으려거든 약도 잘 써야 하지만 밥을 잘 먹어야 하네. 먹는 밥이 살로 간다고 밥맛을 잃지 않도록 밥상대접을 잘 받는다면 누구나 나처럼 오래 살수 있어.》

고달은 속으로 의원이 실없는 소리를 한다고 나무랐다.

잘사는 부자들이라면 몰라도 겨우 때식이나 때고 사는 농사군들이 무슨 재주로 밥맛을 잃을세라 밥상대접을 잘 받을수 있단 말인가.

《자넨 아마 삼복철에 무슨 힘든 일을 하다가 더위를 먹었을거네. 더위를 먹으면 밥맛을 잃게 되거던. 만병의 뿌리는 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함이라 그래서 병이 든걸세.》

고달의 안해가 두손을 모아잡고 간청했다.

《의원님, 제발 병을 고쳐주사이다.》

《거야 어련하겠소. 내 곧 노야기란 약풀을 보내주리다. 그 약풀을 여러날 달여 먹이면 몸안에 든 더위병을 몰아낼수 있을걸세. 허나 잃어버린 밥맛을 되찾아주는건 나도 별수없소그려. 약으로는 안되는 일이니까.》

고달의 안해는 안타까이 물었다.

《의원님! 그럼 어떻게 해야 밥맛을 되찾아줄수 있겠나이까?》

《그건 바로 아낙네들이 할 바일세. 평소에 이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했나?》

고달의 안해는 말문이 막혔다.

늘 먹는 밥으로는 조밥 아니면 콩밥이고 어쩌다 기장밥을 상우에 올렸다. 떡으로는 조떡 아니면 콩떡이다. 찬으로는 고사리며 고비 같은 산나물이나 미나리며 냉이 같은 들나물로 만든 반찬이고 가끔 콩비지 그리고 가물에 콩나듯 생선국 아니면 고기국을 상우에 올렸다.

이건 다 농사가 괜찮게 된 해에 하는 소리이고 흉년에는 풀죽을 면할수 없었다.

보통 농사군집들에서는 다들 그렇게 먹는다.

밥술을 잡은 사람이라면 남녀로소가 다 기장밥에 고기국을 먹길 바란다.

허나 가난한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과 같은 일이다.

대답을 못하는 고달의 안해를 보며 백발로인은 한숨을 지었다.

거친 음식이나 먹고 사는 농사군집에서 어떻게 맛좋은 음식을 생각할수 있으랴. 이런 때 잉어탕을 장복시키면 좋으련만 값비싼 잉어를 무슨 수로 사서 먹이라고 하겠는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입맛을 잃으면 인차 몸이 여위고 기력이 쇠진하여 밥술을 놓게 되는것이다.

백발로인은 고달의 손을 잡고 입을 열었다.

《이 사람, 명궁! 힘을 내게. 어떻거든 먹고 일어나서 명궁술을 젊은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게 아닌가.》

백발로인은 고달의 안해에게도 당부했다.

《임금이 자시는 백미에 기름진 고기반찬만이 입맛을 찾아줄수 있는게 아니요. 병에 따라 약처방이 달라지듯 사람에 따라서도 입맛이 달라지게 되오. 그러니 이 집에서 늘 차리는 음식이래도 그것을 병자가 달게 먹을수 있도록 맛나게 료리하면 얼마든지 명약이 될수 있소. 재삼 말하지만 밥 한알이 귀신 열을 쫓는다는걸 명심하오.》

백발로인은 집에 돌아가자 노야기약풀을 보내주었다.

그 약을 며칠간 달여먹고 한결 머리가 거뜬해진 고달은 안해가 성의껏 차린 밥상에 나앉았다.

기장밥에 붕어졸임이 올라있었다.

처음에는 밥상을 반반하게 해치울듯싶었는데 몇술 먹으니 헛구역이 나서 먹을수 없었다.

맥없이 숟갈을 내려놓는 고달을 보고 안해는 괴로와 눈을 감았다.

어떻게 해야 이전처럼 밥을 먹음직스럽게 들게 할수 있을가. 의원은 약만으로는 입맛을 돌리기 어렵다고 하였다. 산해진미를 차리면 좋으련만 가난한 처지에서 그건 꿈같은 일이다.

궁냥을 거듭하니 그래도 고달이 평소에 콩비지를 좋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긴 병중에 콩비지를 차려주지 않은건 아니다. 고달은 그때마다 콩비지를 한두술 뜨다말았다.

혹시 이번엔 콩비지가 그의 입맛을 돌려줄지 알겠는가.

안해는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콩비지를 또 쑤었다.

그러나 고달은 이번에도 콩비지를 한두술 뜨다말았다.

봄철에 즐겨 먹는 나물음식

달래음식

달래는 파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달래로는 달래김치, 달래무침, 달래장절임, 달래지지개 등을 만들어 먹을수 있다.

이른 봄철이면 뿌리채로 깨끗이 씻은 달래를 굵직굵직하게 채친 무우와 섞어 고추가루, 소금, 젓갈을 넣고 고루 버무린 다음 4~5일동안 익힌 달래김치가 별맛이다.

또한 달래를 양념장에 담근 달래장절임은 만들자마자 먹어도 산뜻한 맛이 나고 3~4시간뒤에 먹으면 달래의 속까지 양념물이 배여들어가서 독특한 맛이 더 살아나므로 봄철에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이다.

냉이음식

냉이는 배추과에 속하는 두해살이풀이다.

이른봄에 캐서 뿌리채로 국을 끓이거나 나물로 메워먹으면 입맛이 절로 당긴다.

기름에 된장을 두고 볶다가 장국물에 냉이를 넣어서 국을 만들면 구수하고 감칠맛이 있다.

또한 냉이뿌리를 데쳐낸 다음 잘게 찢어 고추장과 양념장에 버무린 냉이무침도 봄철음식의 하나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달래볶음

냉이조개국

야담

꾀있는 조카와 린색한 삼촌

예로부터 해주에서 나는 수양매월먹을 제일로 일러왔다. 한 재상이 황해감사로 가있다가 돌아왔는데 그의 조카가 먹을 좀 달라고 그를 찾아갔다. 그러나 린색한 그는 없다고 딱 잡아떼였다.

빈손으로 돌아온 조카는 어떻게 해야 이름난 수양매월먹을 손에 넣을가 궁리하다가 한가지 꾀를 쓰기로 하였다.

하루는 재상이 어디 나가고 없을 때 조카가 찾아와 재상의 부인에게 《우리 숙부님께서 황해감사로 지내실적에 두 기생에게 홈뻑 빠져계셨답니다. 한 기생은 수양이라 하고 다른 기생은 매월이라 하였답니다. 숙부님께서 벼슬이 바뀌여 돌아오실때 옛정을 잊을수 없어 먹에다 두 기생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오셨답니다. 제 말이 못미더우시면 해주에서 가져온 먹을 한번 보십시오.》

재상부인이 그 말을 곧이 듣고 달려가 먹궤짝을 열어보니 모두 수양매월먹이였다.

부인이 화가 동해 먹궤짝들을 마당에 내동댕이치니 먹이 땅바닥에 한벌 깔리였다. 이때라고 생각한 조카는 먹을 가득 주어 소매안에 넣어가지고 가버렸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재상에게 부인이 새파래서 욕설을 퍼부었다.

《그렇게 잊지 못하겠으면 기생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넣을거지 먹에다 새길건 뭐요?》

사연을 알게 된 재상은 그제야 조카의 꾀에 넘어간줄 알고 어이없이 웃었다.

《그런게 아니요. 해주에서 제일 높은 산은 수양산이고 그곳 매화와 달이 유명하여 예로부터 해주먹을 수양매월먹이라고 한다오.》

그래도 성이 독같이 난 부인은 그냥 욕설을 퍼부었다. 재상은 견디다 못해 두귀를 틀어막았다.

본사기자

ㄱ—1583ㄷ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